

여수시, 소외 섬 '추도' 주민 정주여건 개선 '온 힘'



여수시 화정면에 소재한 연면적 0.04km²의 작은 섬인 추도 전경. (여수시 제공)

마을 옛 돌담·공룡 발자국 화석 등 문화재 보호구역 식수원 개발, 주택·선착장 정비, 도선 운항 검토 등

여수시가 관내 소외 섬 중 가장 작은 '추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추도는 여수시 화정면에 소재한 연면적 0.04km²의 작은 섬으로 소수의 주민들만 거주하고 있어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는 소외 섬 중 하나다. 국가등록문화재인 마을 옛 돌담과 천

연기념물인 공룡 발자국 화석, 해안 퇴적암층, '용궁 가는 길'로 불리는 석문이 있어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이기도 하다. 여수시는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추도 급수환경 개선을 위한 식수원 개발 사업을 비롯한 '작은 섬 큰 기쁜 사업'을 통한 주택정비, 선착장 및 호안 정비공사, 공중화장실 신축 등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추도는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된 여객선 안전기준에 따라 접안시설 미비로 2017년 6월 여수-둔병항로의 기항지에서 제외돼 주민들의 이동권이 제한, 시는 올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에 신청했으나 최종 미선정됐다. 여수시는 내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 전까지 추도를 비롯한 소외 섬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선이 운항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여객선이 운항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밖에 늘어난 방문객으로 환경 훼손, 섬 주민 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방문용 CCTV를 설치하는 한편, 문화재 보존과 관광객 탐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추도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섬인만큼 관광 위주의 섬이 아닌 지속가능한 공공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섬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추도의 문화를 관광객과 공유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 기자

고흥군, 귀농어귀촌인 모니터링 강화

전담 요원 2명 배치...불편·애로사항 상시 파악

고흥군이 군으로 이주한 귀농어귀촌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힘쓰고 있다. 21일 군은 "귀농어귀촌인이 당초 목적대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편·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귀농 준비 ▲이주 실행 ▲지역 정착 ▲주민융화 단계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집중관리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전화 모니터링 전담 요원 2명을 배치하고 상담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 16개 읍·면 영농어정착도우미 등 2명의 인력을 활용해

귀농어귀촌인의 주거, 복지, 마을 주민과의 관계 등 고흥 정착 과정에서의 불편·애로사항을 상시 파악하게 된다. 군은 현재까지 귀농어귀촌인 2천400여명을 대상으로 1차 모니터링을 마치고 자녀교육 환경 개선, 공공일자리 안내 및 제공, 저운저장고 등 농업 관련 지원사업 확대 등 107건의 불편·애로사항을 접수했다. 모니터링 결과 접수된 불편·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배정하고 현장 확인, 귀농어귀촌인 면담 등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중장기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예

산 및 정책 반영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지속 관리하게 된다. 공영민 군수는 "귀농어귀촌인을 유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흥에서 터를 잡고 정착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역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귀농어귀촌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인구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청년 프로젝트 고흥 3달 살아보고 정착 ▲귀농·귀촌인 집들이 행사 지원 ▲귀농·귀어 정착자금 이차차역 지원 등 다양한 인구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최보현 기자



화순군 "1만원 임대주택 경쟁률 8대 1"

1차 입주분 50명 확정...내달 3일부터 입주

화순군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1만원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입주자 추천 경쟁률이 8대 1로 나타났다. 21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1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추천식을 개최했다. 추천행사는 서류접수 신청자 500명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442명에 한해 추천 기회를 제공했고, 이날 현장에 400명이

참석해 8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날 추천으로 제1차 입주분 50명이 확정돼 이달 말까지 선정된 입주자와 전대차 계약을 완료, 다음달 3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1만원 임대주택 사업은 구북구 군수의 강력한 실천 의지가 담긴 청년을 위한 주거 공약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을 위해 화순군이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에는 민간 임대아파트가 다수인

반면 공실도 발생하고 있어 청년 주거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활용 시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화순군은 지난해 7월부터 준비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 (주)부영주택과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올해 4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구북구 군수는 "2차분 1만원 임대주택(50호)을 계획대로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탈락했다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8월 공모에 다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구례군,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 '에코원정대' 첫걸음

내달부터 탄소중립 실천 '도전 골든벨'·캠페인 등 추진

구례군이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에코원정대(사진)'의 첫 출발을 알렸다. 21일 구례군에 따르면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 사업은 주민 생활 속에서 생태학습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에코원정대, 에코 리더 활동가 양성 등 생태 자원을 활용한 생태 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에코원정대 프로그램은 지난 17일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진행했다. 단오 명절을 앞두고 부모와 자녀 참가자 40여명이 찰포물 체험, 한지 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군은 다음달부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탄소제로 도전 골든벨', 섬진강 생태자원을 활용한 섬진강 놀이터, 압화를 바탕으로 한 생태 미술 활동, 구례수목원의 수국정원 체험 등 다양한 생태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전문 생태 활동가 양성을 위한 '에코 리더 양성과정'과 유엔 기후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33 전남 유치에 관한 군민 캠페인도 추진해 탄소

중립 실천 동참을 유도하고, 기후 보호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생태학습 도시 사업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반응이 좋아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품격 생태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해 전남형 으뜸 생태학습도시, 섬진강권역 생태학습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례=임종길 기자

광양 마을공방 '동행 GY' 개소

작업실·카페·물품판매·도자기 체험

광양시 마을기업과 마을공방을 위한 창업 플랫폼이 마련돼 주민 소득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21일 광양시에 따르면 전남 정인화 시장을 비롯해 사회경제계 기업 관계자, 마을기업인, 공방 운영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행 GY' 마을공방 개소식을 가졌다. (사진) 개소식은 현판 제막식, 희망메시지 남기기, 공방 라운딩, 다과 및 음료 시식회 등으로 진행됐다. 중마청통길 88번지에 소재한 동행 GY 마을공방은 시가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 마을공방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고, 시비 3억원을 추가해 총 4억원의 사업비를 건립했다. 시는 지난해 연면적 144.64㎡의 건물

내부를 공방작업실, 회의실, 공동카페 등 주민 소통 공간으로 리모델링했으며, 올해 공방 운영자로 '광양시 지역공동체협동조합'을 선정했다. 공방에서는 지역 내 마을기업과 마을공방의 물품 판매, 카페 운영, 도자기 체험과 기술습득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이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며, 일요일·공휴일은 휴관한다. 정인화 시장은 "광양시 마을기업과 마을공방 관계자들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확보돼 매우 기쁘고 개소를 축하한다"며 "이곳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 공여가 등의 거점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길 기자



'옛 보성여관'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추진

보성군, 국가 등록문화재에서 즐기는 문화 체험

보성군은 21일 "오는 11월까지 벌교읍 '옛 보성여관'에서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청과 전남도, 보성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국가 등록문화재 제132호 옛 보성여관에서 지역 문화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옛 보성여관을 알리고 그 가치를 지켜나가고자 추진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감성 공연

(실내악·판소리·연극) ▲문화 체험 교실(연지방 공예·녹차 화장품) ▲주말 힐링 문화공간(전통 악기 공연) ▲보성여관 속속들이 등이 있다. 감성 공연은 민족음악가 채동선 선생의 곡을 골자로한 실내악 공연, 서편제보성소리를 계승하는 지역명창 판소리 공연, 근대연극공연이 운영될 예정이다. 문화 체험 교실은 보성 녹차를 활용한 화장품 만들기, 연지방을 활용한 전통 공예 활동이 진행되며 주말 힐링 문화공간 프로그램은 주말 상시 테마공



연이 진행될 계획이다. 보성여관 속속들이는 상설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이 보성여관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스크래치 보드 작품을 만들어 보는 체험 활동이다. 생생문화재 프로그램은 일정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방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성여관(061-858-7528)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임병연 기자

'순천대' 글로벌대학30 전폭 지원 약속

순천시, 지자체·대학·지역산업체 등 발전 전략 수립

순천시는 21일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인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순천대학교가 예비지정에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글로벌대학30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된 순천대는 오는 9월 본 지정 평가를 통과하면 5년 간 1천억원의 국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범부처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비지정 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호남

권 3곳으로 순천대와 전남대, 전북대다. 이밖에 강릉원주대(공동), 경상대, 부산대·부산교대(공동), 순천향대, 안동대·경북도립대(공동), 연세대 미래캠퍼스, 울산대, 인제대, 충북대 한림대(공동), 포항공과대, 한동대, 한림대로 전국에서 총 15곳이 선정됐다.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이 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육성하고자 지난 4월 공모가 시작된 '글로벌대학30' 사

업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108개 대학이 신청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아 왔다. 순천시는 9월에 이뤄질 '글로벌대학30' 본 지정 평가를 대비해 지자체와 대학, 지역 산업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노관규 시장은 "지역에서 국립대학이 갖는 위상은 산소와 같이 대학에 문제가 생기면 지역도 같이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글로벌대학30 예비지정에 노력해준 이병은 총장과 대학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며 본 지정 평가를 위해 시 차원에서 크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